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태도 유형 - Q-방법론적 접근 -

권현주* · 정혜경 · 류은정 · 정연강**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A Study of Sexual Attitudes in University Students - Q-methodological approach -

Hyun Joo Kweon*, Hae Kyung Chung, Eun Jung Ryu
and Yeon Kang Chung**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Because sexual awareness is changing, I have tried to classify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sex. This study examined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used a Q-method to measure these attitudes. Out of a total of 202, 33 statements were abstracted, and a P-sample of 1-7 parties consisting of 26 persons were studied. I Q-sorted the statements with a standard of 9 points for normal distribution and analyzed the data by means of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ith a Quan PC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research,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sex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Type 1 are called open-minded open: They may have a surgical abortion in case of an unexpected pregnancy and sexual intercourse occurs when a man and woman feel love for each other. They don't see sexual intercourse as a means reproduction nor virginal purity as unconditional. It is remarkable that these students regard sexual intercourse as a natural thing and sex as a basic desire of human beings. In short, they show an open-minded attitude toward sex. Type 2 are supporters of virginal purity; They regard virginal purity with great importance. They insist that both man and woman should be chaste but that sexual intercourse before marriage is unfavorable only to the woman. They do not believe in sexual intercourse without love and emphasize purity in sex education. Differen from type 1, they are very negative about surgical abortion. Type 3 experss love through sex. They belive that sexual intercourse makes a couple happy and a way to express their affection for each other.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is improved through sexual intercourse. They do not think of sexual intercourse in terms of childbirth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에게 성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실체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실체로 인간의 문화는 성을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 이상으로 만들고 있고, 정서적 유대 없이 짝을 짓는 일은 드물다고 하였으며, 성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여 좌악시 되기도 하고 단지 생식을 위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쾌락추구를 의미하기도 하고, 인간 공유의 지고한 형태로 간주하였으며,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개념과 태도 형성은 어린이의 초기 조건화에 따른 사춘기의 성의식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있다고 하였다(Shorter, 1977).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에 관한 사회 현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매스 미디어에 의한 성 정보와 성 환경은 여러 곳에서 범람하고 있으며, 서구사회의 성 개방풍조는 우리나라 사회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이광자, 1990). 전통적인 우리의 관습을 보면 성적인 표현은 결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가르쳐 왔으나 오늘날 성 관계를 갖는 것이 꼭 결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이 젊은이들과 성인들 가운데서 점점 성행되어 문란한 성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으며(오토, 1976), 성개방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고,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성의 자극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이춘재 외, 1988).

성한기(1996)는 청년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지니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성욕을 부추기는 섹스 산업이 창궐하고 있으며, 성에 관한 허용적 규범과 억압적 규범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신체적으로는 성숙하나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하다는 점과 효과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성윤리나 행동에 있어서 남성에 대한 기준과 여성에 대한 기준이 규범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소위 성에 관한 2중기준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경험하면서 전반적으로 진보화되며, 입학 당시 보수적이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진보화되어 고학년이 되면 모든 학생이 유사한 성향을 지니게 됨을 밝혔고, 이런 경향은 성적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도 비슷하리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학생들의 성적 진보화 경향은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하였다(성한기, 1989).

따라서 현시점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인식, 성교육 및 제반 정책들이 재검토되고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올바른 성의식을 정립하고 성욕의 건전한 해소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적 자극이 증가되고 성의식이 개방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주관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태도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실태를 유형별로 알아보고,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여 올바른 성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태도의 구조적인 유형을 발견한다.
- 2) 성의식에 대한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 본다.

II. 문헌고찰

1. 성의 개념

성(sex)이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동서양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그 뜻과 강조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마음(心)'과 '생기다(生)'라는 뜻의 합성어로서 주로 품성, 타고난 성질, 마음의 본체 등의 인격(personality)을 나타내며,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정태적의미를 지닌다(정하성, 1992).

반면 서양에서의 'a sex'는 'sexual life'적인 행위감을 수용하므로 성행동적인 동태적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으며, 라틴어의 'secare'나 영어의 'seco'에서 유래하였다. 이것은 원래 한몸이었던 남녀(androgynous)를 신이 둘로 절단했다고 하는 신화에서 생겨났으며, 그 의미는 남녀의 인간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현옥 외, 1992).

안재정(1983)에 의하면 “성이란 창조적이며 생산적이다”. 성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면 인류사회는 발전,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성은 금기, 경멸, 수치로 취급되기 보다는 오히려 받아 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성이란 시간(역사)과 공간(민족)에 따라서, 혹은 그 사회환경과 성별에 의해서 그 인식과 개념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 성이란 사람과 사물의 본 바탕인 만유의 본능중 하나로써 남성, 여성, 중성, 동성 등 생리적 구분의 의미만이 아니라 천성, 기질 등 내면적 심리상태까지 포함해서 의미한다”고 했다. 인간은 출생시부터 모든 동물과 같이 남·여로 구분된 성적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동물과는 달리 성차에 따른 명확한 역할구분이 되고 있다. 동물의 경우 성역할이 구분되는 점은 세대계승을 위한 생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동물은 일정한 발정기에만 생식을 위한 성행위가 가능하다. 즉 성적 존재로서의 행위적 특성은 특정한 시기에만 의미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동물과는 달리 생물학적인 성차 이외에 성특성의 의미가 중시되며 남녀간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역할이 구분되는 데 성역할의 주체자는 자신의 내적인 성 정체감에 따라 외적인 행위를 달리하게 된다(Goldman, 1982).

정하성(1992)은 성의 개념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사랑의 상호 표현행위와 안정과 욕구충족의 성적 쾌락 구조로 설명하고 있으며, 함중한(1992)에 의하면 현대 들어와서는 일종의 성적 혁명(sexual revolution)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개방성에 기초하고 있고, 성과 사랑의 분리에 그 특성이 있는데 그 혁명의 형태는 범람하는 각종의 성에 관련된 유인물과 같은 성적 정보의 홍수시대 조류에서 안전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Spranger(1955)는 성욕과 인성발달과의 관계에서 개체가 완전히 청년기로 접어드는 성숙의 단계까지는 애정의 힘이 애욕을 지배하게 되며, 결혼때까지는 욕구불만을 통제해야만 된다는 금욕주의론을 내세우고 금욕은 성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성이란 부정적인 것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인간의 성은 생명과 사랑을 창조하는 기본적인 원천으로 인간행위의 모든 특성속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격체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생식기 생리, 성행동, 수정, 임신, 자위, 성병, 피임에 관한 성지식을 대학생에게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수정, 임신, 피임, 순결, 성병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은자, 1978), 대학생들 스스로 성에 관한 지식수준이 보통정도 알고있다 50.25%, 잘 알고 있다 37.77%, 잘모른다 11.98%로 대체로 잘 알고 있다고 지각하였다(성한기, 1996).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이성의 성징(월경, 초경)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김영숙, 1981), 또한 성애, 자위, 동성애, 인공수정, 성적자극에 대한 성지식에 있어서는 항목에 따라 학년간에 차이를 보였다(성영자, 정연강, 1984).

결혼전 성관계, 동거 및 순결과 같은 성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성관계가 적고, 고민이 적었다(박영신, 1988). 남녀 모두 혼전성관계를 삼가해야 한다는 61.54%이고, 혼전성관계를 용인하는 입장은 22.74%였다(성한기, 1996). 여자 대학생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79.6%가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반면 남자 대학생은 혼전 순결에 대해 40.9%만이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강현숙, 1977; 강현숙, 1978). 남학생의 대다수가 여학생에 비해 성행위를 자연스럽게 보았고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사랑이 없이도 성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순결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육체적 순결을 순결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김은자, 1978). 성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성행위나 성에 대한 언급을 하여도 수치감이나 죄의식을 덜 느끼며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에 대한 지식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인규, 1984; 윤가현, 1990). 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성별, 주거상태, 종교, 인종 등이었다(김은자, 1978; 박영신, 1988; 김주연, 1993; Larossa, 1988; Coleman-Kenney, 1992).

성경험에 있어서 성교 경험은 학년, 연령, 성별, 부모생존여부, 주거형태,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성교 경험이 많았고,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교 경험이 훨씬 많았다(김은자, 1978; 박영신, 1988). 성교경험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서

1학년 16.22%에 비해서 4학년은 32.03%로 성교경험비율은 2배로 증가하였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험비율이 3배정도 높았다(성한기, 1996). 부모 생존 여부에 따라서는 결혼 가정의 학생에게서 성교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형태에 있어서는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지역별로는 도시 학생보다는 농촌 학생에게서 성교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를 하게된 동기를 보면 편부나 편모인 학생이 욕구불만 해소를 위해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더 많았다(윤귀임, 1982; 박영신, 1988).

미국의 경우 최초의 성교 경험 연령은 9세에서 18세로 평균 12.9세로 나타났으며(Moody, 1990),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교를 경험한 남학생의 88.8%가 15~19세에, 여학생의 46.6%가 15세 미만에 첫 성교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이명화, 1993).

Hurlock(1973)은 사춘기에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 여하가 일생동안의 성적태도를 좌우하며 또한 사춘기의 성에 대한 태도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한 성지식을 얻는 시기와 범위, 영향을 준 사람의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여러가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성적 미숙상태에서 성적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동성간의 관계보다 이성간의 관계가 부각되고 성에 대한 유아적인 인식으로부터 성인으로서의 성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전환기이다. 이 시기에 주로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는 인생을 통해 성적태도를 좌우하며 성인후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결혼생활에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소야자, 1986).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들은 어느 한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인 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III. 연구 방법

1. Q-방법론의 이해

Williams Stephenson이 1935년 창안한 Q-방법론은 주관성 측정을 위해 고안된 통계모형이고 동시에 심리학적 이론이며 또한 과학철학이다. 이 방법론은 그동안 과학에서 경시되던 주관적인 영역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불가능하거나 비실용적이라고 믿어 왔

던 주관적행위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Q-방법론은 *concourse* 이론을 그 배경으로 하는데, *concourse*의 개념인 Q-모집단(Q-population)에서 추출한 항목을 Q-표본(Q-sample)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Q-표본(Q-sample)을 이용하였다. 이들 항목은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손으로 옮겨 분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분류하는 응답자가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아참조적(self-referent)인 것이어야 한다(김홍규, 1990a).

또한 Q-방법론은 가설이나 이론을 발견하고 창출하는 abduction의 과학적 논리에 따른다. Abduction은 발견의 논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써 귀납법과 같이 추론하는 것은 같으나 귀납법이 하나의 표본에서 전체를 추론하여 기술하는 것인 반면 abduction은 사실의 전체에서 주관적 현상의 설명과 해석을 하는 것으로써 Q-방법론에서는 각 개인들이 만드는 의견의 총체인 Q-모집단에서 Q-분류와 Q-요인 분석 및 결과를 통한 해석과 설명이 이 논리를 구성한다. 이 논리는 어떤 규칙의 발견이라기 보다는 추론적 감각을 통한 사실의 폭넓은 설명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 하기에 유용한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2. Q-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Q-모집단(Q-population)은 전문서적, 신문, 잡지 등의 문헌에서 수집한 성에 관한 자료들과 일반인, 대학생, 성 상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1997년 12월 18일~1998년 1월 12일까지 중립적이고 심층적인 면접을 통하여 총 202개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33개의 진술문은 Q-모집단(Q-population)중 지도교수 1인과 간호학자 2인의 자문을 받아 의미의 명확성과 중복여부를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추출하였다.

3. P-표본의 구성

Q-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가 아니라 개인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

표 1. Q-sample 항목

Q-진술문
1. 원하지 않는 임신은 낙태수술도 무방하다.
2. 성관계는 아기를 갖고 싶을 때 갖는다.
3. 성관계는 부부금슬을 더 좋아지게 한다.
4. 성적으로 불만족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5. 심신이 지치면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
6. 여자의 순결은 지켜져야 한다.
7. 남자가 단둘이 있게 되면 성적욕구를 느낀다.
8.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 받아야 한다.
9. 피임법에 관한 성교육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10. 요즈음의 성문화는 건전하지 않다.
11. 남편이 아내에게 피임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2. 성적인 유혹은 남자에게 더 많다.
13. 여자는 성적표현을 수동적으로 한다.
14.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15. 성폭력 피해자는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
16. 연인들의 피부접촉은 애정표현이다.
17.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
18. 요즈음의 성문화는 개방적이다.
19. 자위행위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20. 성적으로 만족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21.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만 불리하다.
22. 파다노출된 여자의 옷차림은 성적욕구를 유발한다.
23. 일반적으로 '성관계'는 건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24. 사랑이 없는 성관계도 때로는 필요하다.
25.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 하여서는 안된다.
26. 방충매체는 성문화를 변화시킨다.
27. 성관계는 남자가 사랑을 느낄 때 이루어진다.
28. 성은 종족번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29. 근친상간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0. 혼외 성관계는 사회를 혼란시킨다.
31. 성교육을 할 때 순결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32. 성적인 욕구는 남녀 모두 미혼인 경우에 더 강하다.
33. 성교육은 연령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므로 P-표본(P-sample)의 수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Stephenson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Q-연구를 행하였으며 오히려 P-표본(P-sample)이 커지면 통계학적으로도 문제를 갖게 된다(김홍규, 1992). 이런 의미에서 Q-방법론은 소표본 이론(small-sample doctrine)에 근거하고 있다(김홍규, 1992).

본 연구에서는 P-표본(Q-sample)의 수가 커지면 Q-방법론의 전제인 소표본이론에 어긋나므로 통계적 문제를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 모

표 2. Q-sort의 점수 배열

점 수	1	2	3	4	5	6	7	8	9
	(-4)	(-3)	(-2)	(-1)	(0)	(+1)	(+2)	(+3)	(+4)
카드수	2	3	4	5	5	5	4	3	2

대학 대학생들을 계열별로 1~7명을 추출하여 총 26명을 선정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P-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였다. 코딩방법은 배열카드에 기록된 진술항목 번호를 확인하면서 1점에서부터 9점까지 점수화하였다. 각각의 점수는 1점(-4), 2점(-3), 3점(-2), 4점(-1), 5점(0), 6점(+1), 7점(+2), 8점(+3), 9점(+4)으로 부여하였으며, 이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하였다(표 2 참조). 또한 분석에 필요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진술문도 입력하였다.

자료분석은 Quanl PC Program을 사용하여 P-표본 26명의 Q-sort를 주인자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의 결정을 위해 아이겐치(eigen values) 1.0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IV. 결과 분석

1. Q-유형의 형성

본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3개의 유형은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태도 유형으로 각 유형별 특성과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나타난 3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44.6%를 나타내고 있다. 각 요인별 설명력을 보면 제 1유형 25.5%, 제 2유형 12.0%, 제 3유형 7.1%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다음은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이다(표 4 참조). 제

표 3. 유형별 Eigen value와 변량의 배분율

	type 1	type 2	type 3
eigen values	6.6266	3.1237	1.8438
variance	.2549	.1201	.0709
cummulative	.2549	.3750	.4459

표 4. 유형간의 상관관계

	type 1	type 2	type 3
type 1	1.000		
type 2	.388	1.000	
type 3	.426	.210	1.000

1유형과 제 2유형의 상관관계는 .388이며,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426,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210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각 유형별 P 표본은 제 1유형이 9명, 제 2유형이 8명, 제 3유형이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자 가중치가 클수록 그가 속한 유형을 가장 잘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2. 유형별 분석

1) 제 1유형: 개방형

제 1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9명의 응답자중 여학생이 5명 남학생이 4명으로 나타났으며, 6명의 종교가 기독교이며, 가톨릭, 불교, 무교가 각각 1명씩이었다(표 5 참조).

제 1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제 1유형에서 긍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보면 '원하지 않는 임신은 낙태수술도 무방하다'(표준점수 +1.89), '성관계는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이루어진다'(+1.85),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 하여서는 안된다'(+1.5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보면 '성관계

표 5. 제 1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순서	변수	연령	성별	종교	전공	성교육 유무	인자 가중치
1	VAR 22	23	여	기독교	어학	무	1.7632
2	VAR 12	20	남	기독교	예능	무	1.2477
3	VAR 9	20	남	무교	공업	유	.9485
4	VAR 5	22	여	기독교	보건	유	.8940
5	VAR 11	21	여	기독교	예능	유	.7679
6	VAR 24	20	여	가톨릭	보건	유	.7075
7	VAR 4	19	남	기독교	공업	유	.7008
8	VAR 20	19	여	기독교	예능	유	.6383
9	VAR 1	20	남	불교	공업	유	.5753

표 6. 제 1유형에서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1. 원하지 않는 임신은 낙태수술도 무방하다.	1.89
27. 성관계는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이루어진다.	1.85
25.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 하여서는 안된다.	1.50
22. 과다노출된 여자의 옷차림은 성적욕구를 유발한다.	1.39
16. 연인들의 피부접촉은 애정표현이다.	1.36
3. 성관계는 부부금술을 더 좋아지게 한다.	1.13
33. 성교육은 연령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4
13. 여자는 성적표현을 수동적으로 한다.	-1.20
8.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 받아야 한다.	-1.21
14.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1.28
20. 성적으로 만족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1.34
24. 사랑이 없는 성관계도 때로는 필요하다.	-1.65
2. 성관계는 아기를 갖고 싶을 때 갖는다.	-1.71

는 아기를 갖고 싶을 때 갖는다'(표준점수 -1.71), '사랑이 없는 성관계도 때로는 필요하다'(-1.65), '성적으로 만족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제 1유형은 낙태수술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였으며,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낄때 성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기를 갖기 위해 성관계는 갖는 것은 부정하였으며, 사랑이 없는 성관계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유형의 이와 같은 특성은 나머지 다른 유형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진술문에서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다(표 7 참조).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원하지 않는 임신은 낙태수술도 무방하다'(차이 + 2.146), '성관계는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이루어진다'(+1.725), '과다노출된 여자의 옷차림은 성적욕구를 유발한다'(+1.477)순이었다. 반면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여자의 순결은 지켜져야 한다'(차이 -1.614),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1.606), '근친상간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1.123)순으로 나타났다.

제 1유형의 특징은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과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에 대한

표 7.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기타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
1. 원하지 않는 임신은 낙태수술도 무방하다.	1.892	-.254	2.146
27. 성관계는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이루어진다.	1.846	.120	1.725
22. 과다노출된 여자의 옷차림은 성적욕구를 유발한다.	1.388	-.089	1.477
19. 자위행위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580	-.503	1.083
25.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 하여서는 안된다.	1.504	.502	1.002
8.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	-1.211	-.202	-1.009
29. 근친상간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487	.636	-1.123
17.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	.485	2.092	-1.606
6. 여자의 순결은 지켜져야 한다.	.112	1.726	-1.614

선택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응답자 22는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는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나, 원하지 않는 경우의 임신은 본인에게나 그 아이에게 삶을 살면서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하였으며, 응답자 9는 "두사람 모두에게 원하지 않는 아기가 생겼다면 부모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쌍할 것 같다. 그리고 딸만 계속 낳는 맘머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또 딸이면 원하지 않는 딸을 계속 낳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라고 하였다.

반면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응답자 22는 "성관계는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것이다. 그런데 아기를 갖고 싶을때만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으며, 응답자 9는 "만약 성관계를 종족번식으로만 갖는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게 없다. 동물들은 번식기 때만 관계를 가지는데, 인간은 감정과 이성에 있다. 서로 사랑하면 꼭 아이를 안낳더라도 피임을 해서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제 1유형에 속한 대학생들의 특징은 원하지 않는 임신일 경우는 낙태수술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성관계는 남녀가 사랑을 느낄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성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아기를 갖기 위해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부정적 동의를 보일뿐 아니라 동물들의 번식기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볼 때 제 1유형의 특성은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개방형이라 할 수 있다.

2) 제 2유형: 순결 중시형

제 2유형에 속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응답자 8명중 여학생이 5명이고 남학생이 3명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기독교 3명, 가톨릭 2명, 불교 2명, 무교 1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명 모두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제 2유형에서 나타난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제 2유형에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으로는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표준점수 +2.34), '여자의 순결은 지켜져야 한다'+(1.87),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만 불리하다'+(1.38)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사랑이 없는 성관계도 때로는 필요하다'(표준점수 -2.02), '성교육을 할 때 순결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1.45), '원하지 않는 임신은 낙태수술도 무방하다'(-1.39)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 2유형은 남녀모두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춘행

표 8. 제 2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순서	변수	연령	성별	종교	전공	성교육 유무	인자 가중치
1	VAR 10	21	여	가톨릭	예능	유	2.6903
2	VAR 2	24	남	가톨릭	가정	유	1.6626
3	VAR 19	21	여	무교	보건	유	1.3012
4	VAR 7	20	여	기독교	보건	유	.9992
5	VAR 8	20	남	기독교	공업	유	.7337
6	VAR 18	22	여	기독교	보건	유	.6324
7	VAR 21	21	여	불교	사회	유	.5530
8	VAR 26	22	남	불교	사회	유	.1350

표 9. 제 2유형에서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진 술 문	표준점수
17.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	2.34
6. 여자의 순결은 지켜져야 한다.	1.87
21.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만 불리하다.	1.38
14.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1.18
27. 성관계는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이루어진다.	1.18
25.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 하여서는 안된다.	1.10
28. 성은 종족번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1.02
13. 여자는 성적표현을 수동적으로 한다.	-1.02
2. 성관계는 아기를 갖고 싶을 때 갖는다.	-1.13
1. 원하지 않는 임신은 낙태수술도 무방하다.	-1.39
31. 성교육을 할 때 순결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1.45
24. 사랑이 없는 성관계도 때로는 필요하다.	-2.02

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사랑이 없는 성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교육을 할 때 순결을 강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유형이 나머지 다른 유형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을 보면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차이 +2.685),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만 불리하다'(+1.746),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 받아야 한다'(+1.525) 순이었으며, 반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원하지 않는 임신은 낙태수술도 무방하다'(차이 -2.773), '성교육을 할 때 순결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

이다'(-1.463), '성관계는 부부금술을 더 좋아지게 한다'(-1.402)순이었다.

제 2유형의 특징은 제 2유형에 속한 대학생들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과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명확히 알 수 있다.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로 응답자 10은 "순결은 반드시 여성만 지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남자 역시 건전한 성에 대한 인식과 신념이 필요하며 이는 여자나 남자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응답자 2는 "남성이라고 여성에게 순결을 강조하는 건 잘못이다. 남자도 순결을 중요시 해야한다"고 하였다.

반면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19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면 성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그런데 단지 성욕의 충족을 위해서,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갖는 것은 상대를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응답자 7은 "사랑없는 성관계는 즉, 욕구에 의한 성관계는 인간이 동물과 다를바가 뭐있을까? 인간에게는 금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제 2유형은 남녀 모두의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의견에는 남녀 모두 순결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사랑이 없는 성관계가 욕구충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상대를

표 10.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 술 문	표준점수	기타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 이
14.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1.181	-1.505	2.685
21.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만 불리하다.	1.375	-371	1.746
8.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 받아야 한다.	.478	-1.047	1.525
17.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	2.340	1.164	1.176
6. 여자의 순결은 지켜져야 한다.	1.866	.849	1.017
18. 요즈음의 성문화는 개방적이다.	-715	.358	-1.072
22. 과다노출된 여자의 옷차림은 성적욕구를 유발한다.	-348	.780	-1.128
24. 사랑이 없는 성관계도 때로는 필요하다.	-2.022	-844	-1.178
3. 성관계는 부부금술을 더 좋아지게 한다.	.056	1.458	-1.402
31. 성교육을 할 때 순결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1.454	.008	-1.463
1. 원하지 않는 임신은 낙태수술도 무방하다.	-1.387	1.386	-2.773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동물과 같다고 표현했다. 또한 낙오자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도 낙태수술에 대해 서는 부정하였다. 그러므로 제 2유형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순결중시형이라 명명할 수 있다.

3) 제 3유형: 애정표현의 수단형

제 3유형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9명의 응답자중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 3명이었으며, 종교는 기독교 6명, 무교 2명, 불교 1명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제 3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표 12 참조).

제 3유형에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표준점수 +1.84)이며, '성관계는 부부금술을 더 좋아지게 한다'(+1.78), '연인들의 피부접촉은 애정표현이다'(+1.68)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성관계는 아기를 갖고 싶을 때 갖는다'(표준점수 -1.89)이며, '매춘행위

는 없어져야 한다'(-1.73), '일반적으로 '성관계'는 건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 3유형은 남자도 순결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성관계는 부부금술을 좋아지게 하고, 연인들의 피부접촉은 애정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성관계가 아기를 갖기 위한 도구로 생각되는 것에 강하게 부정하였으며, 매춘행위는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관계가 남녀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제 3유형이 다른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표 13 참조).

제 3유형이 다른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사랑이 없는 성관계도 때로는 필요하다'(차이 +1.801), '성교육을 할 때 순결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1.728), '근친상간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1.545) 순이었다. 반면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성관계는

표 11. 제 3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순서	변수	연령	성별	종교	전공	성교육 유무	인자 가중치
1	VAR 25	22	남	기독교	사회	유	.4313
2	VAR 14	22	남	기독교	어학	무	1.1312
3	VAR 13	21	여	기독교	예능	유	.7514
4	VAR 16	26	남	기독교	보건	유	.5862
5	VAR 15	25	남	무 교	어학	유	.5560
6	VAR 23	26	남	기독교	보건	유	.5139
7	VAR 3	26	남	불 교	공업	무	.4974
8	VAR 6	21	여	기독교	공업	유	.4359
9	VAR 17	23	여	무 교	보건	유	.3644

표 12. 제 3유형에서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진 술 문	표준점수
17.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	1.84
3. 성관계는 부부금술을 더 좋아지게 한다.	1.78
16. 연인들의 피부접촉은 애정표현이다.	1.68
6. 여자의 순결은 지켜져야 한다.	1.59
29. 근친상간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1.29
21.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만 불리하다.	-1.20
4. 성적으로 불만족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1.41
23. 일반적으로 '성관계'는 건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1.42
14.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1.73
2. 성관계는 아기를 갖고 싶을 때 갖는다.	-1.89

표 13. 제 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 술 문	표준점수	기타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 이
24. 사랑이 없는 성관계도 때로는 필요하다.	-.036	-1.837	1.801
31. 성교육을 할 때 순결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673	-1.055	1.728
29. 근친상간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1.292	-.253	1.545
13. 여자는 성적표현을 수동적으로 한다.	.221	-1.108	1.329
19. 자위행위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820	.197	-1.016
25.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 하여서는 안된다.	-.093	1.300	-1.393
14.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1.734	-.048	-1.686
21.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만 불리하다.	-1.199	.917	-2.116
27. 성관계는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이루어진다.	-.938	1.512	-2.450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이루어진다'(차이 -2.450),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만 불리하다'(-2.116),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1.686) 순이었다.

제 3유형의 특성은 이 유형에 속한 대학생들이 가장 긍정하는 항목과 가장 부정하는 항목에 대해 선택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명확해진다.

응답자 25가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는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여자도 남자의 영역에 뛰어들었는데 남자도 지켜보면 어떨까? 남자로써 지켜야 할 항목에 의리, 명예 외 순결도 추가되었다면 어떨까? 그 만큼 순결을 지키기 힘들어졌다."라고 하였으며, 응답자 13은 "현재 여자의 순결만 중요시하는데, 남자는 성관계를 한다해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젠 남자만 순결을 지키는 때가 필요하다 본다."라고 하였다.

반면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에 대한 선택 이유로 응답자 14는 "성관계는 서로 사랑을 증거하고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아이도 갖을수 있겠지만 아기를 갖고 싶을 때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무식한 짓이라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응답자 16은 "물론 절대 아니다, 성관계는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의 일부분 일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때 제 3유형은 기존의 우리사회가 여자의 순결을 강조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남자도 순결을 지켜야 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성관계가 부부금슬을 좋게 해주며 애정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반면 응답자중 아기를 갖고 싶을 때 성관계를 갖

는 것은 대해 부정할 뿐만아니라 무식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었다.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제 3유형은 애정표현의 수단형이라 할 수 있다.

4) 일치항목(consensus items)

일치항목(consensus items)은 세가지 유형이 공유하는 특성이다. 표 15에서 열거한 11개의 항목은 세가지 유형이 평균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정도가 비슷한 항목을 추출한 것이다(표 14 참조).

V. 논 의

본 연구의 결과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태도 유형이 세가지로 구조화 되었다. 따라서 이같이 분류된 세가지 유형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정하성(1992)은 성의 개념을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사랑의 상호 표현행위와 안정과 욕구충족의 성적 쾌락구조로 설명하였다. 또한 오늘날 성관계는 반드시 결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이 젊은 이들 사이에 문란한 성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오토, 1976).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 하는 유형이 제 1유형이다. 제 1유형 대학생들은 남녀가 사랑을 느낄때 성관계를 가지며,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성한기(1996)에 의하면 대체로 성에 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이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함중환(1992)은 현대로 들어와서는 일종의 성적 혁명(sexual revolution)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개방성에 기초하고 있고, 성과 사랑의 분리에 그 특성이 있는데 그 혁명의 형태는 범람하는 각종의 성에 관련된 유인물과 같은 성적 정보의 홍수시대 조류에서 안전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춘재 외(1988)는 성 개방풍조는 우리사회에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자극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제 1유형의 대학생들의 개방적인 성의식 태도는 성정보의 전달에 신중함과 정확성을 고려하여, 인간존중 정신에 입각한 인간교육 전인교육이 요구된다.

Spranger(1955)는 성욕과 인성발달과의 관계에서 개체가 완전히 청년기로 접어드는 성숙의 단계까지는

표 14. 일치항목(consensus items)과 표준점수

진술문	표준점수
28. 성은 종족번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76
33. 성교육은 연령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
10. 요즈음의 성문화는 건전하지 않다.	.43
26. 방송매체는 성문화를 변화시킨다.	.14
7. 남녀가 단둘이 있게되면 성적욕구를 느낀다.	-.39
15. 성폭력 피해자는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	-.44
32. 성적인 욕구는 남녀 모두 미혼인 경우에 더 강하다.	-.50
12. 성적인 유희는 남자에게 더 많다.	-.69
23. 일반적으로 '성관계'는 건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86
20. 성적으로 만족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94
2. 성관계는 아기를 갖고 싶을 때 갖는다.	-1.58

애정의 힘이 애욕을 지배하게 되며, 결혼때까지는 욕구불만을 통제해야만 된다는 금욕주의론을 내세우고 금욕은 성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였다. Spranger의 금욕주의론은 순결을 중시하는 태도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성희(1992)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유교적인 오행 사상과 인습의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 성교육 역시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였고, 김정희(1992)는 여자에게는 안하니만 못한 순결교육으로 잘못된 여성관만을 심어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이러한 주장들을 설명하는 유형이 제 2유형이라 할 수 있다. 강현숙(1977, 1978)은 여자 대학생은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79.6%이고, 남자 대학생은 40.9%만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성한기(1996)는 남녀모두 혼전 성관계를 삼가해야 한다고 61.54%로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제 2유형인 순결중시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제 2유형은 남녀 모두 순결을 강조하였고,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만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랑이 없는 성관계를 부정하였다. 또한 성교육을 할 때 순결을 강조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교육을 생리적 차원에서만이 아닌 사회, 심리, 윤리, 도덕 등 정신적 차원을 통해서 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겠다.

애정표현의 수단형인 제 3유형은 Shorter(1977)의 연구결과 나타난 정서적 유대없이 짝을 짓는 일이 드물다 하였던 것과 Reiss(1989)의 타인과 친밀해지는 수단으로도 중요하다. 그리고 Knox(1971)의 부부의 성적 성숙과 성욕의 일치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루는 요인이 된다고 한 이론들을 근거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성한기(1989)가 지적한 성적 진보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제 3유형은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하고, 성관계가 부부금술을 좋아지게 하며, 연인들의 피부접촉은 애정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성관계가 남녀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형이었다.

이와 같이 요즘 대학생들의 성의식 태도가 주관성에 따라 세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각각 유형들에서 나타난 특성은 대학생들의 주관적인 성의식 태도이며, 대학생들의 주관적 성행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는 양적 연

구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심리적 측면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각 유형별 특성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성의식 태도는 개방형, 순결중시형, 애정표현의 수단형이었으며, 본 연구자는 세가지 성의식에 대한 태도를 기반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생의주기에 따른 학년별 교육과정속에서 교과과목으로 성교육이 시행되므로서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건전한 성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성의 존재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실체이다. 인간의 성문화는 생물학적 행위 이상이다. 따라서 성적 자각이 증가되고 성의식이 개방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의식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구조적인 유형과 각 유형별 성의식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태도를 연구하여 각 개인의 주관성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하기에 유용한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태도는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 1유형은 개방형으로 제 1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은 낙태수술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남녀가 사랑을 느낄때 성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고, 성관계는 종족번식의 수단은 아니며 순결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유형 대학생들의 특징은 남녀의 성관계를 그자체로 인정하였으며, 성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받아들이고 있어,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유형은 순결중시형으로 제 2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성에 대한 의식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유교사상과 유사점이 많다. 제 2유형은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혼전 성관계는 여자

계만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이 없는 성관계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으며, 성교육을 할 때 순결을 강조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유형과는 상대적으로 낙태수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 2유형의 특성은 순결중시형이라 할 수 있다.

제 3유형은 애정표현의 수단형으로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하고, 성관계는 부부급술을 좋아지게 하며, 연인들의 피부접촉은 애정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관계가 남녀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성관계가 아기를 갖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는 강한부정을 하였으며, 매춘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 3유형은 애정표현의 수단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세가지 유형의 일치항목(consensus items)은 성은 종족번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성교육은 연령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요즈음의 성문화는 건전하지 않으며, 방송매체가 성문화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인 만족과 스트레스 해소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며 '성관계'라는 용어가 주는 느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건전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 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세가지 태도유형을 토대로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 전략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질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현숙 : 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조사연구, 경희간호연구지 제1집, 59-68, 1977.
- _____ : 남자대학생들의 성에관한 인식 및 태도 조사연구, 경희간호연구지 제2집, 51-59, 1978.
- 김소야자 : 도시청소년의 성에대한 지식과 태도조사, 연세대학교, 간호학논집, 9, 1-2, 1986.
- 김영숙 : 일부 사범대학생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중앙의학, 41(6), 371-376, 1981.
- 김은자 : 일 대학교 남녀학생이 특성에 따른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의 실태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1978.
- 김정희 : "청소년과 성폭력 :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0, 169-180, 1992.
- 김주연 :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격형에 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1993.
- 김현옥, 안창선 편저 : 학교 성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2.
- 김홍규 : Q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8, 20-57, 1990a.
- _____ : 주관성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간호학논문집(서울대학교 간호대학), 6(1), 1-11, 1992.
- 박영신 : 일부 사범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3(6), 393-413, 1988.
- 성영자, 정연강 : 남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연구, 중앙의대지, 9(3), 461-477, 1984.
- 성한기 : 보수성향의 극화에 관한 종단적 접근 : 대학경험의 효과, 학생지도연구, 성균관대학교, 8, 35-46, 1989.
- _____ :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태도와 행동,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논문집, 52, 207-229, 1996.
- 안재정 : 고등학교 성교 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22, 1983.
- 오도, A., 피퍼 : 성과 결혼 성서적 이해,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6.
- 윤가현 : 성의 심리학, 서울, 성원사, 1990.
- 윤귀임 : 남녀 고교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1982.
- 이광자 : 청소년과 성 문제, 대한간호, 29(5), 5-14, 1990.
- 이명화 :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서울 YMCA청소년상담실, 1993.
- 이성희 :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1992.
- 이인규 : 일부 도시지역 남녀고교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47(2), 105-114, 1984.
- 이춘재외 : 청년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88.
- 정하성 : 청소년과 성, 서울, 한국 청소년 문제연구소, 1992.
- 함종한 : 청소년학 원론,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2.
- Coleman-Kenney K. R. : The influence of selected family background variables in the reported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 and sex education of traditional age college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in southeastern pennsylvania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992.
- Goldman J. R. : Children's Sexual Thinking,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82.

28. Hurlock, E. B.: *Adolesent Development*, McGraw-Hill Inc., Tokyo, 1973.
29. Knox, D.: *Marriage happiness*, New York, Stony Book, 1971.
30. Larossa V. S.: *College dating : Behaviors and Current sexual norms as a function of selected characteristic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8.
31. Moody L. P.: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ected situational and 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ing contraceptive use and pregnancy risk among adolescent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90.
32. Reiss, I. L.: *Society and sexuality : A sociological explanation*. In K. McKinney and S. Sprecher (eds.). *Human sexuality : The societal and interpersonal context*. Norwood, NJ, Ablex, 1989.
33. Shorter, E.: *making the most of marriage*. New York, Basic Books, 475-481, 1977.
34. Spranger, E.: *Psychologic des Jugesters*, Twenty-Fourthed, Heldelberg : Quelle & Meyer, 1955.